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려는 노력은 헛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귀를 누린 왕인 솔로몬은 해아래서 인간의 생은 모두 허무하다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권세나 인기 그리고 특권이나 즐거움으로도 인간의 공허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I. 제목

전도서는 전도자 Preacher 즉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자 라는 뜻에서 히브리어 제목 코헬레트 으로 매우 드문 말이며 전도서에만 발견된다 (1:2, 12; 7:27; 12:8-10). 칠십인역은 헬라이어 에클라시아테스 (Ikklesiastes)를 이 책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에클라시아(ekklesia)에서 총회, 회중, 교회가 나왔다. 라틴어는 Ecclesiastes 로 총회앞에서 서는 연사를 의미한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증거는 외증과 내증이 모두 충분하다. 1) 외증: 유대 탈무드 전통은 본서를 솔로몬에게 돌린다. 2)내증 : 저자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로 불렀다(1:1, 12).

솔로몬은 이 책에 있는 탐구를 위해 가장 자격을 잘 갖춘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1:16; 왕상 4:29-30). 쾌락에 대한 전도자의 설명에 대한 묘사(2:1-3), 인상적인 성취(2:4-6),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부(2:7-10)는 솔로몬왕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 이 책에 있는 잠언들은 잠언서에 있는 것들과 유사하다(7:10). 12:9 에 의하면 전도자가 수집하고 많은 잠언들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잠언에서 두 솔로몬의 수집을 가리킬 것이다. 전도서 자저의 통일성은 코헬렛에 대한 7 번의 인용으로 지원받는다.

전도서는 언제 어디서 썼는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은 그의 초기에 노래를 작곡했는데 젊은이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는 중년에는 잠언을 써서 중년의 지혜를 표명하였다. 그는 노년에 전도서를 써서 노인의 슬픔을 나타내었다 (참고, 12:1). 아마도 전도서는 열왕기상 11 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후회면서 참회한 기록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주전 931 년에 썼을 것이다. 그 장소는 이스라엘의 통치와 권력의 자리 예루살렘이었다(1:1, 12, 16).

III. 전도서의 구성

1:1-11 서론 인생의 허무의 총론적 고찰

1:12-12:7 제 1-4 강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

제 1 강화 (1:12-3:15) 인생 허무의 예증과 극복의 가능성

제 2 강화 (3:16-5:20) 인생 허무의 원인 규명과 그 극복을 위한 유일한 길

제 3 강화 (6:1-8:13) 허무극복을 가능케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

제 4 강화 (8:14-12:7) 허무한 인생의 실상과 극복을 위한 교훈들

12:8-12:14 결론 여호와 경외의 결단 촉구

체험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간증의 형식으로 교훈하는 지혜문학이다.

IV. 전도서의 목적

- 1) 역사적 목적: 삶의 최고 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인생의 참된 철학에 관한 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 2) 교리적 목적: 근본적 가르침은 이중적이다. 부정적으로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참된 만족은 하나님안에서만 발견된다. 또한 기본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참고, 12:13). 전도서는 구약의 지혜문학의 다른 책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많은 교리들이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주권(3), 인간의 부패(7:29), 신적 총명(지혜) 그리고 죽음의 종국이다(3:17, 20).
- 3) 기독교적 목적: 그리스도의 인격을 두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다룬다. (1) 그리스도는 신자가 사모할 가장 큰 선이시며 궁극적인 만족이시다(참고, 요 4:13). (2) 그리스도는 이 책의 지혜가 나오는 목자나 스승이시다 (12:11; 참고, 요 10:1 과 골 2:3). 개략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 추구의 생명수이며 우리의 지식에 대한 욕망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만족 기쁨, 그리고 지혜를 예비하실 수 있으시며 인간의 최고 선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한 목자(12:11)를 발견하는데 있다.

V. 전도서의 주제들

- 1)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지혜 부요 쾌락 명성 등 인간의 모든 상대적 가치는 무의미하다.
- 2)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유한한 존재이다. 영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존재이다.
- 3)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계획되고 실현되고 있다.
- 4)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림으로 허무를 극복하려는 것이 어리석다.
- 5)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생과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세워주신다. 여호와 안에서 허무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 6) 우리의 생활에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필히 심판이 따른다.

VI. 전도서의 그리스도

- 1) 그리스도는 지혜를 주시는 한 목자: 인생 허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능하다.
- 2) 그리스도는 인생의 허무를 극복케 할 유일한 분이시다. 창조자 (12:1) 범사에 기한을 정하신 분 (3:1-15)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3:20-21; 5:18-20) 절대 주권자 (5:1-7) 경외하는 자 (3:14; 7:18; 12:13) 이시다.
- 3) 그리스도는 인생을 심판하실 자이시다.

VII. 전도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전도서의 주제는 1:2 과 12:8 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더구나 후렴으로 해아래서란 말이 29 회난 나온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반복해서 그가 보고 보았던 것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그는 신적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관찰을 통해서 인생을 취급하고 있다. 자주 헛되다라는 말이 해아래서란 접속사로 나타나는데 이 히브리말은 순식간에 혹은 수증기란 의미이다. 따라서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만 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내세를 속하지 않는 삶이 될 때 그것은 헛되다는 것이다.

- 1) 핵심 단어: 헛되다, 해 아래서
- 2) 핵심 요절: 1:2; 12:13-14
- 3) 핵심 장 : 12 장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지혜 (50), 마음 (40), 헛되다 (38), 해 아래서 (29) 등이 있다. 특히 하나님의 고유 명칭인 여호와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아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독자로 삼은 것을 반증해 준다.